

<http://www.krgweb.com>

+82-2-2102-3160(TEL)

+82-2-2102-3111(FAX)

Knowledge Research Group



KRG Special Report

한국기업의 IT 투자 분석보고서(95년-99년)

전략경영의 핵심 무기로 인식,

인프라 구축에서 마케팅 솔루션으로 투자 패턴 ‘전환’

Overview

오늘날 기업에서 정보기술(IT)은 현업을 지원하는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닌 전략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KRG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국내기업들의 정보시스템 투자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T투자 패턴이 최근 몇 년새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에서 IT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리 이윤창출과 고객지향의 주요한 마케팅 툴로써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투자 금액과 같은 양적인 부문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투자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로 IT투자는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체 IT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 가량을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IT를 접목시키는 소위 ‘IT의 전략화’ 단계에까지는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Document ID AN0002RG7R

발행일 2000.9.1

Analyst KRG

Contents

- 1) 99년 160대기업 IT투자 분석
- 2) 94년 100대 기업 IT투자 동향
- 3) 95-96년 100대 기업 IT투자 동향
- 4) 97년 100대 기업 IT투자 동향
- 5) 98년 100대 기업 IT투자 동향

Table of Contents

- <표1> 주요 기업(기관)의 전산예산 투자 추이(1998년-1999년)
- <표2> 전체 부문별 IT예산 투자
- <표3> 1998년대비 1999년 분야별 전산예산 증감률
- <표4> 국내 상장기업 업종별 평균 전산예산과 전산인력(94년)
- <표5> 한국과 미국기업의 정보시스템 투자 비교(1994년)
- <표6>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과 전산인력 추이(94년)
- <표7> 96년 국내기업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추이
- <표8> 96년 국내기업 부문별 전산예산 투자 비중
- <표9> 97년 국내 상장기업들의 전산 예산 투자 현황
- <표10>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투자추이
- <표11> 98년 국내 주요 기업(관)들의 업종별 전산예산 투자 현황
- <표12>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추이(98년)
- <표13>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분포도(98년 기준)

Summary

IT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요즘, 우리기업들의 IT에 대한 투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IT에 대한 새로운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사적으로 IT가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자 이익창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선진국형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KRG가 지난 5년동안의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IT기업 제외)의 IT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도적인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간의 경쟁력의 격차는 IT투자에 좌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KRG가 국내 기업들의 IT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기업들이 IT를 단순히 현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이 아닌 경영전략의 새로운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IT의 기업내 역할이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우리기업들의 전산투자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었다. 계획은 없었고,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행태를 보였다. 중장기적인 플랜보다는 현업 요청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전산화하는 후진적인 IT플랜을 갖고 있었다. 조사초기년도인 94년에 비해 99년도 조사에 선 국내 기업들이 IT투자 계획을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매출액 대비 전산투자 비율이 지난 96년을 기점으로 1%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IMF 한파가 몰아친 98년도에 이 수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1%대라는게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IT투자에 소극적이었던 한국기업들이 IT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기업의 IT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 선진기업들이 주로 IT의 전략적 활용을 모색하는 질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반면 여전히 국내기업들의 IT투자는 인프라 부문에 치중돼 있다. 이는 우리기업들의 정보기술 투자가운데 40% 이상을 여전히 하드웨어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하드웨어 투자 비중이 94년 60%대에서 99년도에는 20%가량 낮아졌다는 점에서 점차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전산투자 편차가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기업일수록 전산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IT투자는 아직도 미약하다.

1) 99년 IT투자 분석

-IS예산 전년대비 16% 증가

KRG가 국내 대표적인 기업 및 기관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99년도 전산예산은 1998년 1조9천619억원 대비 16% 증가한 2조2천7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개 기업(관)당 평균 전산 예산은 1998년 123억원 대비 16%가 늘어난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은 전년보다 IT예산 규모를 늘린 반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IT예산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군에 분류되는 80개 기업 및 기관의 경우 1998년 1조8천550억원보다 16.9% 증가한 2조1천692억원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관)의 평균 전산예산 역시 1998년 238억원보다 17% 늘어난 278억원으로 평균 50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

4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1999년도 전산예산 규모는 1998년 338억원보다 15% 감소한 28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 기업 당 평균 예산 역시 98년보다 15% 감소한 8억여원에 불과했다.

또한 중견기업체 50개사의 1999년도 전산예산은 1998년 730억원 대비 3%에 증가에 그친 755억원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당 평균 전산 예산 역시 1998년 15억9천만원에서 3% 증가한 16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업종 평균 616억원 IT투자

업종 전반적으로는 정보통신업종의 평균 전산예산이 1개사당 616억원을 기록, 가장 높게 책정했으며, 은행 407억원, 일반제조 285억원, 정부/공공기관 262억원, 기타 금융권(증권, 보험, 카드) 등이 206억원의 전산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금융권, 특히 은행권이 주도했다. 1998년도 통합과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한해를 보냈던 은행권은 통합화에 따른 대규모 계정계 또는 정보계시스템 재구축 움직임과 전면적인 금융개방 시대에 맞춰 전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따라 올들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렸다.

정부/공공기관은 국가정보화 추진작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전산화 투자 움직임 활발해지면서 예산규모 역시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 및 도소매, 무역업종 역시 신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예산규모를 98년보다 두자리수 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 보험, 카드사 등의 기업들의 전산투자 규모 역시 98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1998년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여파로 증가폭은 여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98년 IMF 여파에 따른 매출격감으로 99년도에는 전산예산을 다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에 따른 매출의 양극화 현상이 전산예산 부문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예산 40%가 하드웨어에 집중됐다

전산예산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아웃사이드 서비스(컨설팅, 아웃소싱) 등으로 분류할 때 전체예산 가운데 40%는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2%를 유지/보수 부문에 투자할 방침이며, 아웃사이드 서비스 부문에는 15%를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는 14%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소프트웨어의 질적 고도화를 지향하기에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Y2K해결에 가장 많은 예산투입

1999년 정보시스템 분야의 최대 화두는 Y2K, 데이터웨어하우징, ERP 등으로 모아졌다.

Y2K문제는 99년도가 최종 시한이라는 점에서 각기업들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부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특히 Y2K 해결과 함께 21세기 신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대대적인 시스템 재구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Y2K 검증 테스트용 툴이 99년 가장 주목받는

소프트웨어로 떠올랐으며, Y2K 진단 컨설팅 분야 역시 각광받았다.

데이터웨어하우징은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관망상태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도입 바람이 불었다. 특히 1998년까지 일부 금융권 또는 통신업종에서만 국한되던 데이터웨어하우징은 유통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상당수가 향후 도입할 전략정보 솔루션으로 데이터웨어하우징을 꼽고 있다.

특히 기존에 데이터웨어하우징을 구축해 현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층 데이터웨어하우징 솔루션을 고도화, 데이터마이닝을 새롭게 추가한다든지 인트라넷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웨어하우징을 이용한 CRM, KMS 구축으로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되는 ERP

구조조정의 효율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ERP는 올해 가장 큰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 그동안 대기업에서만 주종을 이루던 ERP 시스템은 1999년 들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컨설팅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바람이 초반부터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ERP와 웹의 연계, ERP와 PDM, SCM의 연계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으며, ERP의 전기능보다 모듈별로 도입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사 특성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다.

아웃소싱은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에게 정서적으로 요원한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SI 자회사를 통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소기업들은 크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전산업무 아웃소싱 움직임과 함께 일부 은행권에서 아웃소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아웃소싱은 향후 2~3년내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기업들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략은 크게 전문 쇼핑몰 구축과 주요 구매, 주문을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의 인터넷 기반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많은 기업들이 EC관련 인프라 구축과 요소 기술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를 통한 '사이버 이코노미' 시대에 대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관리시스템 분야 역시 아직까지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 대한 명확한 검증사례가 없다는 점, 구체적인 구축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 KMS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부족, KMS 도입을 위한 기반 인프라 부족, 실 사용자들의 마인드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부 극소수 기업을 제외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용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1999년도는 개인용 시스템 시장보다는 기업용 하드웨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기업들의 전산투자 부문에서 하드웨어 증가폭이 32%에 달하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기업용 서버로서 윈도우NT 서버는 유닉스 서버를 대수면으로 크게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해까지 유닉스와 NT 서버 선호도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1999년에는 7:3, 적어도 6:4 비율로 NT서버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400으로 대변되는 전용시스템 부문은 기존 고객들의 대체 수요 내지 업그레이드 수요는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유닉스나 혹은 NT서버를 교체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인프레임 부문은 최근의 서버 콘솔리데이션 추세와 통합 데이터 서버의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꾸준한 수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물량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은행들이 합병에 따른 용량폭증과 최근의 주식폭등세에 기존 시스템의 과부하에 직면한 증권업종 등에서 호스트 증설의 필요성을 절감, 메인프레임 증설 또는 신규 도입 추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스토리지 부문 역시 업그레이드 및 증설을 위한 신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기업의 현재 랜 아키텍처와 백본현황을 보면 이더넷이 아직까지 가장 많은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패스트 이더넷이 그뒤를 따르고 있다. 이외 FDDI와 ATM 등도 국내 기업들이 선호하는 백본망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솔루션은 ATM으로 향후 구축을

최우선 고려중인 아키텍처로 ATM이 꼽히고 있다. 그외
기가비트 이더넷도 각광받을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주목된다.

<표1> 주요 기업(기관)의 전산예산 투자 추이(1998년-1999년) (단위:백만원)

업종		전 체 예 산			평균예산		
		1998년	1999년	증감률(98/99)	1998년	1999년	업체
산업별 고객	정부/공공	163,923	183,257	11.8%	23,418	26,180	7개
	은행	446,493	609,954	36.6%	29,766	40,664	15개
	기타금융	346,164	360,508	4.1%	17,308	18,025	20개
	일반제조	491,658	542,485	10.3%	25,877	28,552	19개
	통신	314,264	369,476	17.6%	52,377	61,579	6개
	도소매,무역	92,509	103,550	11.9%	8,410	9,414	11개
	소 계	1,855,011	2,169,230	16.9%	23,782	27,811	78개
중소기업		33,812	28,733	-15.0%	939	798	36개
기타고객		73,084	75,459	3.2%	1,589	1,640	46개
총 계		1,961,907	2,273,422	15.9%	12,262	14,209	160개

1999년 IT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하드웨어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뒤를 메인テナンス(유지/보수), 서비스(컨설팅 등), SW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IT예산 가운데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요인은 아직까지 고도의 정보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8년 경기불황 여파로 투자를 미뤄왔던 탓인지 99년 들어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대형 서버 등 기업용 하드웨어 제품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1999년 IT예산 가운데 대략

40%인 7천64억원을 하드웨어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지보수 비용에 5천711억원(32%), 서비스 부문에 2천617억원(15%)을,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도입에 2천468억원(14%)을 투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업별 고객들의 전산예산은 하드웨어 부문에 36%, 메인터넌스 부문에 32%를, 서비스 부문에 15%, 소프트웨어 부문에 14%를 투자할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대비 1999년 전산예산 증가율은 16%. 하지만 각 부문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하드웨어 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32%에 달해, 가장 큰 폭의 예산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이 15.2%의 증가세를, 유지보수 부문도 12.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증가세는 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소프트웨어 투자는 당초 기대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전체 부문별 IT예산 투자

부 업 종	HW		SW		메인터넌스		서비스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정부 및 공공기관	29,035	43.3%	24,169	36.1%	11,918	17.8%	1,890	2.8%
은행	319,144	69.6%	38,844	8.0%	79,667	17.4%	22,962	5.0%
기타금융	96,114	37.1%	35,659	13.8%	92,889	35.9%	34,115	13.2%
일반제조업	133,066	24.6%	92,638	17.2%	134,474	24.9%	179,967	33.3%
통신 및 컴퓨터	81,688	22.8%	34,464	9.6%	232,508	65.0%	8,929	2.5%
유통, 도소매	37,234	49.0%	17,917	23.6%	11,055	14.5%	9,780	12.9%

소계(산업별)	696,281	39.6%	241,691	13.7%	562,511	32.0%	257,643	14.7%
중소기업	10,132	36.2%	5,142	18.4%	8,636	30.9%	4,079	14.6%
총계	706,413	39.6%	246,833	13.8%	571,147	32.0%	261,722	14.7%

<표3> 1998년대비 1999년 분야별 전산예산 증감률

부문 업종	HW			SW		
	98예산	99예산	증감률	98예산	99예산	증감률
정부 및 공공기관	19,530	29,035	48.7%	4,740	8,109	71.1%
은행	197,385	319,126	61.7%	24,220	36,835	52.1%
기타금융권	78,145	95,324	22.0%	36,508	35,659	-2.3%
일반제조업	111,793	135,201	20.9%	90,310	94,827	5.0%
통신 및 컴퓨터	86,376	81,688	-5.4%	30,833	34,464	11.8%
유통,무역,운송등	29,254	31,834	8.8%	12,867	15,217	18.3%
소계(산업별)	522,483	692,208	32.5%	199,478	225,111	12.9%
중소기업	9,393	10,432	11.1%	10,771	5,642	-47.6%
총계	531,876	702,640	32.1%	210,249	230,753	9.8%
부문 업종	메인터넌스			서비스		
	98예산	99예산	증감률	98예산	99예산	증감률
정부 및 공공기관	9,819	11,918	21.4%	7,650	1,890	-75.3%
은행	56,387	76,065	34.9%	12,506	22,962	83.6%
기타금융권	91,722	92,889	1.3%	31,943	32,955	3.2%
일반제조업	132,604	134,574	1.5%	162,352	181,467	11.8%
통신 및 컴퓨터	196,355	232,508	18.4%	700	8,929	1175.6%
유통,무역,운송등	8,837	10,055	13.8%	6,042	8,280	37.0%
소계(산업별)	495,724	558,009	12.6%	221,193	256,483	16.0%
중소기업	8,361	8,376	0.2%	4,132	3,112	-24.7%
총계	504,085	566,385	12.4%	225,325	259,595	15.2%

2) 1994년 IT투자 트렌드

-평균 IT투자 5억원

1994년도 국내기업들이 정보시스템에 투자한 금액은 평균 5억원. 업종별로 금융업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은행, 보험사가 평균 84억6천만원, 증권 및 종금사가 22억9천만원, 화학업종 7억9천만원, 섬유·의복·피혁업체 5억5천만원, 목재·제지·가구업 등이 4천1백만원의 전산예산을 투자했다.

<표4> 국내 상장기업 업종별 평균 전산예산과 전산인력(94년) <단위: 백만원>

항목 업종	조사대상	93 매출액	94년 전산예산	매출대비 IT투자비율	전산인력	1인당정보기기 구입비
어업·광업·음식료	15개	197,163	121	0.06%	13	9.0
사무기기·자동차	17개	133,473	507	0.37%	11	46.0
건설	24개	260,109	498	0.19%	13	38.0
금속·기계	25개	135,888	324	0.24%	1	27.0
목재·제지·가구	14개	89,373	41	0.05%	6	7.0
은행·보험	17개	624,943	8,460	1.4%	89	95.0
화학	28개	659,074	787	0.38%	27	29.0
영상·통신	15개	80,662	109	1.1%	7	15.0
섬유·의복·피혁	17개	145,139	553	0.38%	12	46.0
증권·종금사	19개	203,263	2,287	1.1%	34	67.3
도소매업 및 기타	32개	351,751	281	0.08%	12	23.4

업종별로는 금융권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은행, 보험사가 평균 84억6천만원, 증권 및 종금사가 22억9천만원, 화학업종 7억9천만원, 섬유·의복·피혁업체 5억5천만원, 목재·제지·가구업 등이 4천1백만원의 예산을 IT부분에 투자했다.

매출액 대비 IT예산 비율로는 은행·보험업 1.4%, 증권·종금사 1.1% 등이었으며, 일반 제조업체는 대부분 0.5% 미만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심한 편중현상을 나타내는 IT예산은 매출액 기준으로도 다소 기복이 심한 경향을 드러냈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93년에 5백억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업체는 94년에 평균 0.4%의 IT예산을 책정했으며, 500-1000억은 평균 0.74%를 IT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출 상위 기업일수록 정보시스템 투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정보시스템 투자액은 단순금액으로 비교할 때 일본의 1/6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IT관련 인력 평균 16명

정보시스템 부서에 근무하는 전산인력은 평균 16명으로 전체 종업원수 대비 1.6%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업종별로는 은행·보험업 등이 89명, 증권업 및 종금사 등이 34명, 화학업종이 27명으로 정보시스템 인력 1인당 평균 3천만원대의 정보시스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한국과 미국기업의 정보시스템 투자 비교(1994년)

한 국						미 국					
기업명	93년매출 (백만원)	순익 (백만원)	전 산 요	94년 IT예산	매출대비 IT예산	기업명	93년매출 (백만달러)	93년순익 (백만달러)	전산 요원	94년 IT 예산	매출대비 IT예산
A기업	2,529,22	5,090	28	620	0.024%	AT&T	67,156	3,974	28,000	3,800	5.66%
B기업	5,327,02	35,430	16	5,000	0.093%	IBM	62,716	7,987	14,000	2,800	4.46%
C기업	1,555,41 0	154,060	26 0	12,300	0.79%	시어스 로백	50,838	2,409	1,100	383	0.75%

<표6>매출액규모별전산예산과전산인력추이(94년) <단위: 백만원>

매출액 분포	업체수	매출액 (93년 평균)	94년 전산예산 <평균>	매출액대비 IT예산 비율	전산인원 <평균>
500억 미만	54개	27,939	111	0.4%	4
500-1000억	48	69,945	522	0.74%	10
1000-1500억	27	117,722	236	0.2%	14
1500-2000억	24	166,279	327	0.2%	10
2000-3000억	29	238,024	1,283	0.5%	25
3000-5000억	26	378,603	1,600	0.4%	25
5000억 이상	15	1,564,740	8,802	0.56%	106

3) 1995-1996년

-95년대비 38% 이상 증가

96년 정보시스템 부문에 투자한 규모는 95년대비 38% 이상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업종간 예산편차가

심해 정보시스템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매출액 대비 IS 예산 비율에선 은행권이 3.0%, 보험, 종합금융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업종도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전산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요인은 무엇보다 제조업종과 달리 전산투자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시설투자 및 설비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체로는 전자·전기업종이 1.2%를 기록했으며, 비금속·금속업종 0.93%, 의약업종이 0.65%를 나타냈다. 그러나 화학업종이 0.36%에 그친 것을 비롯, 건설업종도 매출대비 IS예산비율이 0.34%를 나타냈다.

또한 매출액 기준 5백억원 미만업체의 경우 1개사당 평균 2억5천만원의 IS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94년 전산비중이 0.4%에서 올해는 0.84%로 증가했다. 또한 5백억원에서 1천억원대 미만 사이 업체는 1개사당 2억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전산비중이 94년 0.74%에서 0.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천억원에서 2천억원대의 기업들은 1개사당 8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94년 0.2% 비율에서 올해는 0.64%로 늘어났다. 2천억원에서 5천억원대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예산 비중이 94년보다 크게 증가해 1.0% 이상을 기록했으며, 5천억원대 이상 기업들은 1개사당 1백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94년 전산비중 0.56%보다 0.2% 늘어난 0.73%를 나타냈다.

<표7> 96년 국내기업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추이

매출액 분포	96년 전산예산		
	평균 전산예산	매출대비IT예산 (96년 기준)	매출대비IT예산 (94년 기준)
500억 미만	249	0.84%	0.4%
500-1000억	287	0.40%	0.74%
1000-2000억	871	0.64%	0.2%
2000-3000억	2,201	1.0%	0.5%
3000-5000억	4,217	1.02%	0.4%
5000억 이상	10,371	0.73%	0.56%

* 조사대상 108개 기업 조사 <단위: 백만원>

<표8> 96년 국내기업 부문별 전산예산 투자 비중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시스템유지보수
비중	44.5%	17.6%	19.1%	18.8%

-전체 예산의 45%, 하드웨어 인프라에 투자

전체 예산 가운데 부문별로는 하드웨어 투자비중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많은 업체들이 주전산기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시기를 당해년도로 잡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 전반적으로 미흡, 이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드웨어 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네트워크 분야. 전체의 19.1%에 해당하는 5백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룹웨어, 인트라넷 등 최근의 정보기술 추세가

LAN 및 WAN 구축이 필수요건이 됨에 따라 이 부문 투자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17.6%에 달하는 5백9억원이 할당됐는데, 자체개발보다 패키지 형태의 구매가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스템 유지보수 부문은 전체의 18.8%인 540억원의 예산을 배당했다.

업종별 현황

- 섬유 · 제지 · 음식료

섬유 · 제지업체는 전년(54억원) 대비 28%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책정. 매출액 대비로는 0.59%. 전체예산 가운데 36%를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했다. 하드웨어는 31%, 시스템 유지보수는 25%, 네트워킹 분야는 7.4%에 불과했다. 음식료 제조업체는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중 50%를 하드웨어에 투자. 이외 소프트웨어(25%), 시스템 유지보수(15%), 네트워킹(10%) 순으로 집계되었다.

- 화학 · 의약

정보시스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화학업종은 전체 매출가운데 0.36%를 정보시스템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보시스템 전체 예산중 54%를 하드웨어에 투자했는데, 이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타업종보다 훨씬 뒤쳐져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드웨어 다음으로 소프트웨어(16%), 네트워킹(16%) 분야의 투자가 활발. 의약업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대비로는 0.65%수준. 부문별 투자에서도 하드웨어(39%)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전자·전기·운수장비·가구업종

전체 제조업 가운데 전산투자가 가장 활발했다. 이들업종의 정보시스템 예산은 전년보다 무려 80~140% 가량 늘어났는데 특히 운수장비·가구업종의 정보시스템 예산은 전년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대비로는 0.47% 규모이다. 또한 전자·전기업종은 전년보다 정보시스템 예산이 79% 증가한 매출액 대비 1.2%를 기록했다.

이들업종은 하드웨어 분야보다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통신업종의 경우 부문별 투자에선 하드웨어가 33%, 네트워킹 27% 등 이들 분야의 투자비중이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운송장비 및 가구업종의 정보시스템 예산중 소프트웨어 비중은 33%로 가장 높게 책정했다. 하드웨어 투자는 27%를 차지했다.

- 금속·비금속업종

금속·비금속업체의 96년 정보시스템 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1백96억원이다. 전체매출액 대비 0.93% 수준으로 전체예산중 하드웨어에 소요된 예산은 41%이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32% 규모이다.

- 건설업종

95년과 비교, 예산 22% 늘렸다. 매출액 대비로는 0.34%에 불과. 또한 전체예산중 58%를 하드웨어 부문에 주력.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16%), 네트워킹(13%) 분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 도소매·운송업

도소매·운송업체들은 96년 정보시스템 예산을 전년보다 28% 늘려 책정했는데 매출액 대비로는 0.44%이다. 특히 이들업종은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전체예산 가운데 38%가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투입됐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23%, 시스템 유지보수 21%, 하드웨어 분야는 18%로 전체업종 통틀어 하드웨어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 금융권

금융권 가운데 은행은 정보시스템 예산이 95년보다 36% 늘어났다. 영업수익 대비 전산예산은 3.0% 수준이다. 전체예산 가운데 67%가 하드웨어에 집중됐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14%를 책정했다. 또한 보험, 증권, 종금사 등 기타금융권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정보시스템 예산을 책정했으며, 전체 영업수익 대비로는 1.1%를 투자했다. 이들업종 역시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중 하드웨어 비중이 37%에 달한다.

4) 1997년

-IS예산 전년대비 26% 증가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탔던 국내기업들의 전산투자가 97년들어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전산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각기업체에 종사하는 전산인력도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평균 전산인력은 1개사당 24명수준이다.

97년 국내 기업의 96년 대비 전산예산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10개 업체 가운데 적어도 4개기업은 96년보다 예산을 줄였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전산투자는 96년(1.06%)보다 다소 증가한 1.13%를 기록했다.

<표9> 97년 국내 상장기업들의 전산 예산 투자 현황

구분	전산예산					평균전산 인력
	96년	97년	증감률	97 전산예산	매출대비 비율	
어업,섬유,제지	10,163	7937	-34%	610	0.4%	11명
화학,의약,고무	12,806	13,821	7.9%	987	0.65%	10명
비금속,금속,광물	13,345	31,228	134%	312	1.44%	13명
전자,통신,전기	36,194	37,737	4.3%	4,717	1.26%	24명
운수장비,가구	1,150	3,060	166%	612	1.12%	6명
건설	55,078	58,423	6.1%	6,491	1.18%	16명
금융	75,041	115,722	54.2%	8,901	1.18%	57명
도소매,운송	59,900	64,130	7.1%	10,735	1.36%	61명
대학 및 정부기관	29,196	30,021	2.8%	2,001	-	16명
전체	263,677	332,058	25.9%	3,930	1.13%	24명

<단위:백만원>

전산예산 편증현상은 96년에 이어 97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금융, 도소매·운송업종 등 특정업종인 경우 매출대비 비중면이나 절대금액치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일부 제조업종의 전산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미비, 전산예산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권과 유통업종의 경우 전산투자가 곧 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생산설비라는 인식이 강한데 비해 아직까지 일반 제조업종에선 정보시스템이 현업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적된다.

절대금액 기준별로는 도소매, 운송업종이 평균 1백7억원을 책정,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융 업종이 1개社당 평균 89억원을 전산예산으로 투자했으며, 건설업종도 65억원을 쏟아부었다. 또한 전자, 통신·전기업종도 47억원의 예산을 배당했으며 가장 적은 예산을 잡은 비금속, 금속·광물업종은 평균 3억원의 예산을 투자, 도소매, 운송업종과 비교해 1/35규모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는 1개기업당 올해 평균 39억원을 전산부문에 투자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5백억원 미만 기업인 경우 전체 매출액의 2.0%를 전산예산에 투자했으며, 5천억원 이상 1.29%, 1천억원에서 2천억원 미만업종이 1.07%를 나타냈다. 그러나 2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대비 전산투자가 각각 1.0%, 1.02%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각각 0.54%, 0.79%로 떨어졌다.

특이한 사실은 연매출 5백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95년 0.4%에서 지난해 0.84%로, 올해 2.0%를 기록해 가장 활발한 전산투자를 단행했다는 사실. 이는 2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의 중견업체들의 전산투자가 96년을 고비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올들어 중소기업

단위의 신정보시스템 구축붐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업체의 평균 전산예산 증가율은 25.9%. 지난해 40% 증가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둔화된 수치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늘어났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두자리수 이상 늘어난 업체는 3개업종. 운수장비, 가구 및 기타 제조업종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전산예산을 책정했고, 비금속, 금속·광물업종은 134%가 늘어났다. 금융업종도 전년보다 54% 예산을 늘려잡았다.

화학, 의약·고무업종이 전년대비 8%의 증가율에 머무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한자리 증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전자, 통신·전기 4.3%, 건설 6.1%, 도소매, 운송 7.1%, 대학 및 정부기관, 협회 2.8%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어업, 섬유·제지업종은 96년보다 34%나 전산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부문별로 살펴보면 절대 비중면에선 여전히 하드웨어 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예산(인건비 제외) 가운데 40%를 하드웨어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에 각각 20%를 배당했다. 또한 전체의 61%가 하드웨어 투자가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고 밝혔으며, 62%는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65%는 올해 네트워크 부문에 전년보다 5% 이상 예산이 늘었으며, 57%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산인력

97년 전산부서에 근무하는 전산인력은 평균 24명, 전체직원 대비로는 1.96%에 달하는 인원이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2천2백8명과 비슷한 2천2백12명의 전산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으로 살펴보면 증가업체(30%)보다 줄어들거나 감소한 업체가 70%를 차지, 각기업마다 전산인력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운송업종이 직원대비 3.2%에 달하는 평균 61명의 전산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업종은 57명의 전산요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직원의 5%에 해당하는 수치. 이밖에 전자, 통신·전기업종과 대학 및 정부기관 등도 평균 24명의 전산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업, 섬유·제지업종이 11명의 전산인력을 보유한 것을 비롯, ▲화학, 의약, 고무(10명) ▲비금속, 금속, 광물(13명) ▲운수장비, 가구(6명) ▲건설(16명) ▲대학 및 정부기관(16명) 등은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 어업, 섬유 및 제지·출판업

어업, 섬유 및 제지·출판업종의 지난해 평균 전산예산은 6억1천만원으로 매출대비로는 0.4%이다. 전산예산은 지난해보다 34% 감소했다. 조사 대상 14개업체 가운데 예산이 증가한 업체는 6개업체. 나머지 업체는 변화가 없다. 또한 조사대상 14개업체의 평균 전산인력은 11명으로 이는 전체직원의 1.1%이다. 전체 전산인력은 지난해 1백62명보다 12명 줄어든 1백5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의약, 고무업종

전체 2조1천2백57억원 가운데 0.65%인 1백38억원의 전산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백28억원보다 8% 증가했다. 조사대상 업체중 3개업체만이 전산 예산을 줄였을 뿐 나머지 업체는 소폭이지만 예산을 늘려잡았다. 평균 전산인력은 10명으로 이는 전체직원의 1.1%에 달하는 것이다. 한편 전체 전산인력은 1백38명으로 전년보다(1백41명) 다소 줄어들었다.

●비금속, 금속·광물

올해 전산예산은 전년(1백33억원)보다 무려 134% 증가한 3백12억원을 책정했다. 매출액 대비로도 조사대상업종중 가장 비중이 높은 1.44%이다. 조사대상 10개업체 가운데 2개업체만이 예산을 줄였을 뿐 나머지 8개업체는 큰폭의 예산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업종의 전산인력 보유수는 평균 13명으로 전체직원의 1.3%이다. 전체적으로 올해(1백27명)는 전년(1백13명)보다 전산인력이 다소 늘어났다.

●전자, 통신·전기

이들업종의 올해 전산예산은 전년(3백61억원)보다 4.3% 미미한 신장에 그친 3백77억원이었다. 매출액 대비로는 1.26%. 전체 8개업체가운데 전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업체는 7개업체. 이들업종의 올해(2백76명) 전산인력도 전년(2백600명)보다 다소 늘었다. 올 평균 전산인력은 전체직원의 1.6%에 달하는 24명이다.

●운수장비, 가구·기타 제조업

이들업종의 올전산예산은 전년보다 무려 166% 증가했다.

전체 2천7백30억원의 매출가운데 전산예산은 1.12%인 30억원이다. 지난해는 11억원에 불과했다. 이들업종의 평균 전산예산은 6억1천만원. 이들업종의 전체 직원대비 전산인력은 1.26%로 평균 6명이다. 전체 전산인력은 지난해(38명)수준과 비슷하다.

● 건설업

조사대상 건설업종의 96년 전체 매출은 4조9천5백억원. 올해 전산예산은 전년(5백50억원)보다 6% 늘어난 5백84억원으로 이는 매출의 1.41%에 해당하는 것이다. 1개社당 평균 전산예산은 65억원. 건설업종의 전산인력은 평균 16명으로 전체직원의 1.41%이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백16명보다 늘어난 1백26명이 근무하고 있다.

● 금융권

개방에 대비한 금융업종의 전산투자는 올해도 크게 늘었다. 올해 금융업종의 전산투자는 전년(7백50억원)보다 54% 증가한 1백16억원. 매출액 기준으로 1.18%이다. 평균 1개 금융기관당 예산은 89억원이다. 하지만 전산인력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지난해 조사대상업체의 전산인력은 총 8백74명이다. 올해는 보다 20여명 줄어든 8백53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균 전산인력은 57명으로 전체직원의5%가 전산직에 근무하고 있다.

●도소매·운송

조사대상 도소매·운송업종의 지난해 매출은 4조7천3백억원. 이중 1.36%에 달하는 6백41억원을 전산부문에 투자했는데, 지난해(5백99억원)보다 7% 가량 늘어났다. 평균 전산예산은 조사대상 업종 중 가장 많은

1백7억원이다. 평균 전산인력은 전체직원의 1.8%에 달하는 61명. 전체적으로 지난해 3백17명보다 다소 줄어든 3백5명이 전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 대학 및 정부기관, 협회

이들기관의 올해 전산예산은 전년 2백92억원보다 3% 증가한 3백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5개기관중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려잡은 곳은 7군데 줄이거나 동결한 기관은 8개기관이다. 전체직원대비 전산인력은 3.21%로 평균 16명의 전산인력이 근무중이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1백88명보다 비슷한 규모(2백3명)다.

<표10>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투자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평균 97 전산예산	매출액 대비 전산예산		
		95년	96년	97년
500억 미만	508	0.4%	0.84%	2.0%
500억- 1000억	349	0.74%	0.4%	0.47%
1000억- 2000억	1,440	0.2%	0.64%	1.07%
2000억- 3000억	1,340	0.5%	1.0%	0.54%
3000억- 5000억	3,337	0.42%	1.02%	0.79%
5000억 이상	17,587	0.56%	0.73%	1.29%

5) 1998년

98년 국내기업(기관)들의 전산부문에 투자한 예산은 1개사당 평균 55억1천1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체의 전산예산만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예산은 15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산예산 대부분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 예산일 뿐 집행을 보류하거나 투자자체를 백지화한 사례가 많아 실제 예산규모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은행의 경우 '빅뱅'의 영향으로 당초 수립했던 예산 가운데 실집행 비율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대비 전산투자 비율 역시 크게 낮아져 지난 95년 수준인 0.6%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98년 전산예산은 지난해(5천4백7억원)보다 10% 증가한 6천8억원 규모. 1개사당 평균 55억원 꼴인 셈이다. 외견상 전산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앞서 지적했듯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했느냐' 여부를 따진다면 실제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0~4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산예산 증가율이 위축되고 있는 주요인은 무엇보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 여파로 좀처럼 기업들의 전산투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97년을 고비로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들이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을 마무리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없는 데다, 유지보수 및 일부 업그레이드 부문을 제외한 투자부분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업종 가운데 전산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업종은 은행(21%), 어업, 섬유, 제지(10%) 등이며, 도소매,

운송, 무역업종은 3% 증가했다. 또한 제 2금융권(은행, 증권 제외)과 대학 및 공공기관도 전년에 비해 1%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은행 대부분이 실제 예산편성에 비해 집행예산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 역시 97년보다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체의 전산투자 삭감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비금속, 금속, 광물업종의 전산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36% 가량 줄어들었으며, 전자, 전기업종도 전년대비 33% 삭감했다. 또한 증권업종도 전년에 비해 20% 가량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화학, 의약, 고무업종은 7%, 건설업종은 3% 가량 줄어들었다.

국내기업들은 97년 전체 매출액 가운데 0.61%를 전산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대비 전산투자비율은 소폭이나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94년 0.4%에서 95년 0.7%로 증가하던 96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어선 1.04%를 기록. 97년도에도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1.13%에 달했다.

하지만 99년들어 경기침체와 이에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전산투자는 크게 위축됐다. 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동결내지 삭감하면서 전산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매출액대비 전산투자 비율은 지난 95년 수준인 0.61%대로 떨어졌다.

국내기업들의 매출액대비 전산투자가 1%에 못미치는 반면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이 고도화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평균 5% 이상을 전산부문에 투자했다. 실제 지난 96년 조사에서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평균 5.1%를 전산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항공업종과 컨설팅업종의 경우 15%를 전산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전체매출의 5%를 투자. 가장 낮다는 의료, 공공기관도 평균 1%를 전산부문에 투자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국내기업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대비 전산투자 비율은 미국기업의 1/6수준에 불과하며,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1/10이 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액 규모별 전산투자 비율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5백억원-1천억원 미만에 속한 업체들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천억원-2천억원 미만업체들이 0.47%로 가장 낮았다.

특이한 내용은 1천억원 미만업체들의 전산투자가 상대적으로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는 96년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산프로젝트 작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규모 전산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11> 98년 국내 주요 기업(관)들의 업종별 전산예산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업종	총매출	전산예산			매출대비 전산예산	평균전산 예산	비고
		97년	98년	증감률			
어업, 섬유, 제지	2,062,120	4,821	5,317	10%	0.26%	443	12개업체
화학, 의약, 고무	1,691,630	7,120	6,635	-7%	0.8%	603	11개업체
비금속, 금속, 광물	3,681,667	13,223	8,434	-36%	0.2%	602	14개업체
전자,전기,기타 제조	988,447	5,943	3,985	-33%	0.4%	443	9개업체
건설업	2,622,030	2,183	2,085	-4%	0.08%	261	8개업체
도소매,운송, 무역	38,233,050	74,377	76,550	3%	0.2%	10,936	7개업체

은행	43,097,070	332,705	403,843	21%	0.9%	21,254	19개은행
증권	700,860	34,063	27,249	-20%	3.9%	3,406	8개증권
제2금융권	3,949,700	57,073	57,356	1%	1.45%	6,372	11개업체
대학 및 공공기관	-	9,224	9,341	1%	-	934	10개기관
전체	97,026,574	540,732	600,795	11%	0.61%	5,511	109개기관

<표12>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추이

구분	평균 전산예산		매출액대비 전산예산				비고
	97년	98년	95년	96년	97년	98년	
5백억원 미만	508	248	0.4%	0.84%	2.0%	0.8%	
5백억-1천억원	349	729	0.74%	0.4%	0.47%	1.03%	
1천억-2천억원	1,440	630	0.2%	0.64%	1.07%	0.47%	
2천억-3천억원	1,340	2,117	0.5%	1.0%	0.54%	0.92%	
3천억-5천억원	3,337	2,200	0.42%	1.02%	0.79%	0.57%	
5천억원 이상	17,587	17,519	0.56%	0.73%	1.29%	0.6%	

<표13> 매출액 규모별 전산예산 분포도(98년 기준)

구분	예산분포도				
	0.1% 미만	0.1%-0.3%	0.3%-0.6%	0.6%-1.0%	1.0% 이상
5백억 미만	10%	20%	40%	30%	-
5백억-1천억원	26%	11%	37%	5%	21%
1천억원-2천억원	40%	20%	-	20%	20%
2천억원-3천억원	27%	18%	18%	9%	27%
3천억원-5천억원	42%	17%	17%	17%	17%
5천억원 이상	13%	17%	10%	23%	37%

전산투자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부문별로 살펴보면 절대금액이나 비중면에선 여전히 하드웨어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예산 가운데 하드웨어 비중은 60%에 달했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은 23%, 네트워크 부문은 15%, 기타 부문은 1%였다.

●어업, 섬유 및 제지, 출판업

조사대상업체중 어업, 섬유 및 제지, 출판업은 총 12개업체. 이들업종의 지난해 총 매출규모는 2조62억원. 이중 0.26%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전산예산으로 할당했다. 이들업종의 지난해 전산예산 규모는 48억원이다. 예산규모가 10% 늘었다. 1개사당 평균 예산은 4억4천만원꼴. 전체 12개업체 가운데 예산규모가 줄어든 곳은 3군데에 불과하며, 4개업체는 예산을 늘렸다.

●화학, 의약, 고무

11개 이들업종의 지난해 전체 매출규모는 1조7천억원. 이중 전산예산은 6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71억원보다 7% 줄어든 규모이다. 1개사당 평균 전산예산은 6억원. 매출대비 전산예산 비중은 0.8%대이다.

●비금속, 금속 및 광물

이들 14개업종의 97년 전체 매출은 3조6천8백17억원. 이들 업종의 올 전산예산은 8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 줄어들었다. 조사대상업종 중 가장 큰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96년해의 경우 이들업종의 전산예산은 1백32억원. 매출액 대비 전산예산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1개사당 평균 전산예산은 6억원이다.

●전기, 전자 및 기타 제조업

조사대상 9개업체의 총 매출액은 9천8백84억원이다. 이중 0.4%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전산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59억원) 대비 전산투자 감소율은 33%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위축 분위기다. 이들업종의 평균 전산예산은 4억4천만원이다.

●건설업

조사대상 8개 건설업체의 총 매출규모는 2조6천2백20억원. 하지만 전산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 소폭 줄어든 20억원에 불과하다. 타업종에 비해 매출액대비 전산투자 비중이 0.1%에도 못미치는 0.08%에 불과하다. 불황에 따른 전산투자 위축의 대표적인 업종이다. 1개사당 평균 전산예산은 2억6천만원 수준이다.

●도소매, 운송, 무역

이들 업종의 평균 전산예산은 1백9억원. 전체 매출액 38조2천3백33억원 가운데 0.2%에 해당하는 7백65억원을 전산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은 3%대. 평균 1백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은행

조사 대상 19개 은행의 98년도 전산예산(자본예산)은 4천38억원. 지난해 3천3백27억원보다 21% 가량 늘어난 수치다. 총 영업수익 대비 전산예산 비중은 0.9%. 1개사당 평균 2백12억원 꼴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예산 가운데 60~70%만을 실제 집행하는데다, 금융권 통합 등 빅뱅 여파로 절대금액 또는 매출액 대비 전산비중 역시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

8개 증권사의 평균 전산예산은 34억원이다. 이는 전체 영업수익 대비 3.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전산예산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2백72억원에 불과하다.

●제2금융권

은행, 증권사를 제외한 11개 금융기관의 올 전산예산액은 5백73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 늘어난 규모이다. 1개사당 전산부문에 평균 64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전산예산 비율은 1.45%.

●대학 및 공공기관

13개 이들기관의 올해 총 전산예산 규모는 93억원으로 이는 97년보다 92억원보다 1% 증가한 규모이다. 1개 기관당 평균 9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